

LISTEN, LEARN, LIVE UNAIDS 1999 세계 에이즈 캠페인

LISTEN, LEARN, LIVE !

1999년 세계 AIDS 캠페인은 전세계의 관심이 더욱 넓어짐을 계기로 인식 형성과 구체적 활동 구축을 목표로 한다.

LISTEN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귀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들어보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SEX, 성욕, HIV/AIDS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자.

LEARN - 어린이가 어린이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어른들은 아이들 또는 다른 어른들로부터, HIV 음성반응자는 양성반응자들로부터 존중, 참여, 지원 그리고 HIV/AIDS 예방대책에 대해 배우자.

LIVE - HIV 감염자가 극소수인 세상, HIV/AIDS에 감염된 어린이와 청소년도 차별없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자.

HIV/AIDS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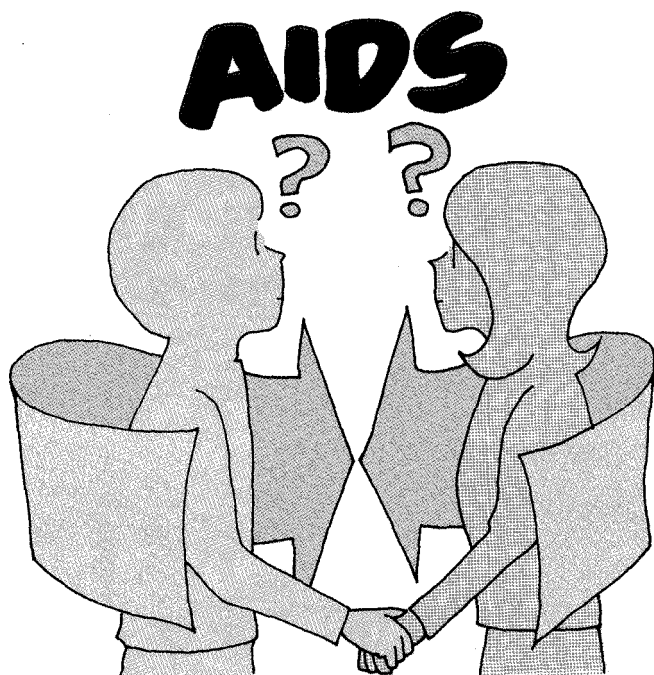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1998년말 현재 HIV 보균자는 성인(15세-49세)과 어린이(0세-14세) 포함 약 130만 명에 달한다. 동성애 남성과 마약투약자의 경우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감염율을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이성간 성관계를 통해 감염됨을 보여주는 여성 감염율의 증가이다. 산부인과에 기록된 임신부 감염 비율은 온두라스에서 1%에 달하고 브라질의 Porto Alegre에서는 3%를 넘는다. 임신부의 HIV 감염비율은 특히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서 높는데 1993년 아이티가 8%, 1996년엔 도미니카 공화국 역시 8%로 보고되었다.

UNAIDS는 1998년 이 한 지역에

서만 15-24세 사이의 65,000명이 감염되었으리라 추정한다. 게다가 유아기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 8,000명도 1998년동안 감염되었으리라 보는데 이들 대부분은 HIV보균자인 엄마를 통해 감염되었다.

개발 도상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HIV 최초 감염 후 평균 8-10년의 기간에 걸쳐 AIDS로 진행되는데 이는 곧 AIDS에 걸린 30대는 20대 초반에 이미 HIV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한다.



확산 범위

1998년에 범미주보건기구(the Pan America Health Organization)가 실시한 '카리브해 지역 청소년 보건 조사'에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0% 이상이 10세 전에, 나머지 20%는 11세 혹은 12세에 이미 성관계를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 HIV 및 성병 감염이란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성관계이다. 카리브 연구서에 의하면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청장년(19세-30세)을 대상으로 한 Lima 연구서에 따르면 단지 11%의 이성애자만이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할 뿐이며 22%는 계획치 않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페루의 동성에 남성 가운데 다섯명 중 2명은 최근 1달 동안 항문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Alan Guttmacher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 전체적으로 젊은 임나들 중 25%-50% 가량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임신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니카라과어의 지역 연구서는 밝혔는데 그 임신부의 약 절반이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이 지역의 많은 소녀들이 낙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0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중 라틴아메리카(전세계인구의 8.5%가 사는)에서 그 중 23%가 이루어진다. 페루와 니카라과어에서 전체 임신 관련 사망의 15%가 청소년들이며 이는 대

부분 불법 낙태 때문이다.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때때로 강간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는 젊은 여성들중 3%가 그들의 첫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응답했다. 강제적인 성관계는 생식기 계통에 상처를 줌으로 해서 HIV 혹은 성병을 유발시키는 세균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예로 미국에서 조사된 Panos보고서에 의하면 강간당한 적이 있는 여성의 4~30%가 그 결과로 성병에 걸렸음을 지적한다.

스타리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손꼽히지만 브라질,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다른 국가들도 점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마약 사용은 이 지역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사기구의 혼용으로 인해 HIV감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카인을 투약하는 사람들(약 1/3이 2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리오네자네이로의 연구서에 의하면 그 중 15%가 HIV 양성반응자였다. 그러나 주사를 통해 마약을 하

15세 이하 어린이의 1998년 HIV 감염 추정치



아동 성학대와 성적착취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HIV 확산에 기여한다. 어린시절의 성적 학대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존중과 삶에 대한 애착을 박탈하여 후에 마약 복용과 매춘으로 빠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매춘을 하는 아동의 80%가 친척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춘관광도 이 지역에서 AIDS관련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춘관광 선호 지역으로 코

지 않을 경우엔 이들 중 HIV감염율이 7%에 불과했다.

마약은 폭력환경을 만드는 많은 요인 중 하나이다. 폭력 또한 HIV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예로 브라질의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응급실에 실려온 청소년(대부분 폭력으로 인해)들이 성병치료를 위해 온 청소년들과 같은 비율의 HIV 감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문제해결의 열쇠

상호대화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전통과 태도를 극복할 용기를 심어줄 수 있으며 HIV/AIDS에 대한 인식과 생존 방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에이즈와 함께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대간 유대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 San Juan에 있는 SIDA는 17-23세 사이의 게이 남성들에게 HIV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게이 남성들은 10주 동안 3시간짜리 연수에 참석하고 상담과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예방 매니저로서 지원 조직을 결성한다.

보다 큰 규모의 예방사업이 'AIDS와 싸우기 위한 콜롬비아 연맹'에 의해 1997-98년에 수행되었는데 안전한 성관계와 구강성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그들 사회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젊은 게이 남성들을 위한 강연회도 열었다.

UNAIDS/UNICEF의 'Play Safe' 운동은 이미 가나,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조직된 운동과 함께 중요한 AIDS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축구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FIFA의 올해 세계 선수상을 두 번이나 받은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도는 세계 AIDS 캠페인의 명예대표이다.

브라질에서 The Coletivo Mulher Vida(여성 생활공동체)는 850명의 열악한 환경속에 사는 여성 청소년들을 돕는다. 교육과 정신적 지원, 여러 곳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을 통해 이 공동체는 여성들의 순종적 자세를 변화

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매춘 및 거리의 불량배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낮은 감염율과 HIV/AIDS 감염자들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UNAIDS는 7가지의 실천방안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전략을 진행시켜 왔다.

청소년과 HIV/AIDS : 해결을 위한 7가지 단계

정책입안자, 언론 그리고 종교단체들을 동원한다.

5. HIV/AIDS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

6. HIV/AIDS 예방과 상담 그 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의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7. 고아 및 HIV/AIDS 보균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보장한다.

이러한 행동방안들도 지역 전체내에서 청소년간 혹은 청소년과 어른들

청소년(15~24세)의 1998년 HIV 감염 추정치



1. 청소년 HIV/AIDS 감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정책을 제검토하고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2. HIV/AIDS에 관한 국가적 대책에 청소년들의 실제적 참여를 도모한다.

3. HIV/AIDS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4. HIV/AIDS와 청소년에 관한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모,

간의 상호의사소통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1999 세계 AIDS 캠페인의 주제로서 LISTEN, LEARN, LIVE를 채택하게 된 이유이다. A

(A) 글은 UNAIDS의 1998년도 에이즈 캠페인 내용을 요약한 것임니다.)

번역 : 이광재 · 정구민 / 자원봉사자